

## ■ 고3,2,1 기말고사 전 정리해 놓아야 할 사항

김진건 소장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중간고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학생이건 아니면 목표했던 성적에 미달된 학생이건, 이제 시험 결과는 잠시 잊어버리고 그동안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시 밀쳐 두었던 부분들을 기말고사 전에 어느 정도는 정리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긴 온라인 수업과 짧은 오프라인 수업 기간 동안 학교에서 수행해야 했던 교내 활동 중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물론 간단하게 정리까지 해두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비교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뿐 만 아니라 비교과 등 학생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건학 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나 이번 1학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 수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1학기 동안 수업은 물론 수업 이외 활동을 점검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3학년의 경우는 기말고사 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 세특 기초 자료 등 학생부에 기재할 내용 등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 놓아야 기말고사 이후 수능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

### □ 진로희망 점검

수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에 대한 중요성이 큰 전형입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고3 11월에 수능 혹은 학력고사를 치른 후 그 결과에 맞춰서 학과를 정했다면,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공부에만 몰두하지 말고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고민한 흔적을 학생부를 통해 누적 기재해 놓으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 내용도 평가 영역에 포함하겠다는 전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적합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 1,2학년 학생부에는 진로희망사항과 사유를 기록하는 자체 항목이 삭제된 대신 진로활동에 '희망 분야'를 기재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실제 대학에 제출할 때는 희망 분야를 가리고 제출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로희망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부만 보고도 이 학생

이 나중에 무엇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정된 진로에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는 로드맵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우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앞으로 교내 활동과 수업에서 자신의 진로가 명확히 보이도록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학년의 경우, 3학년이 된 후에도 자신이 이전에 정해 놓았던 진로희망에서 다른 진로로 꼭 바꾸어야 할 요인이 생기지 않았다면 2학년 때 기재해 놓았던 진로를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화하는 선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3의 비교과 활동이 최소한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학년 때의 진로와 다른 진로는 활동의 연계성을 고려해볼 때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지금쯤은 3학년 진로희망 사유 200자를 꼭 채울 수 있도록 진로를 설정하게 된 계기나 이유,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 내용, 그리고 미래의 포부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학년의 경우, 1학년 때 학생부에 작성했던 희망 분야가 지금도 변함없다면 당연히 그대로 적고 활동도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희망 분야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희망 분야는 대학에 제출되지 않으므로 희망 분야와 관련된 활동이 구체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학생부에 적었던 희망 분야가 지금 시점에서 다른 진로로 바뀌어진 학생은 반드시 바뀐 희망 분야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로희망이 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를 진로활동에 드러낼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학년 때 막연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을 기재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도 구체적인 희망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1학년 때 기재된 희망 분야를 구체화 하는 선에서 2학년 희망 분야를 기재하고, 활동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 학생부 항목에서는 진로희망사항과 사유 항목이 없어졌지만, 대신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항목에 '희망 분야'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지금쯤은 반드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직접 희망 분야를 선택한 사유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유는 미래에 그 진로를 선택하려는 이유나 계기, 노력한 부분, 그리고 그 진로를 통해 실행하고자 하는 포부 등을 포함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서 진로희망 사유를 적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담임선생님께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작성해 놓고 그 계획을 교내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진로가 명확한 학생도 있지만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은 우선 지금까지의 동아리활동, 독서활동을 참고로 앞으로 1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진로에 대한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진로 탐색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 □ 다이어리 점검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록의 전형이라고 할 정도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자신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를 학생부를 통해서 기록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했던 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의미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했던 진로와 연관된 활동, 학교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하도록 추천한 활동들을 수행했다면 수행했던 내용을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께 어필해서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전공적합성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충실성, 그리고 학업역량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부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3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이나 학교 활동 부분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학교생활에서 했던 특이한 내용을 메모 형식으로라도 다이어리에 기록해 두어야만 나중에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매력적인 학생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3학년의 경우, 수시전형이 3학년 1학기 학생부 내용까지 반영되고,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학생부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당장 다이어리를 통해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 즉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란에 기재할 내용들을 확인하여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업과 관련하여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았던,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항들, 즉 수행평가나, 발표, 질문했던 내용들을 과목별로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다이어리에 정리한 내용들은 기회를 봐서 담임선생님이나 각 교과 과목 선생님께 어필하여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작성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은 학생부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활용한 꼼꼼한 기초자료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다이어리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지금부터라도 학교생활, 수업 중에 있었던 특이한 사항은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학년의 경우도 비록 학생부 정리를 하는 시점이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11월, 12월이지만 그때 가서 정리할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수업 중에 어떤 특이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다이어리에 각 활동, 수업 내용 중 특이한 것들은 다이어리에 반드시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학생부에서 중요한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 내용이 기재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빈손으로 가서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다이어리를 지참하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이어리에 메모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학생부에서 모든 학년 자율활동은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은

1,000자에서 700자로, 행동특성종합의견은 1,000자에서 500자로 바뀌었습니다. 동아리활동은 500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몇 시간 했는지를 기록하는 봉사활동 실적 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봉사활동 하면서 배우고 느낀 사항을 쓰는 특이사항의 경우 삭제되었습니다.

## □ 후속, 연계 활동 로드맵 작성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되는 학교활동은 단편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활동보다 이전 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후속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학교에서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활동을 통해서 개인 각자가 배우고 느낀 점이 있었을 때 그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화하는 후속활동과 연계하여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목별 수업 중에 있었던 세부능력특이사항을 적는 항목에 있어서도 각 개인이 수행평가나 발표 등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확장하는 후속활동의 유무, 혹은 후속활동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 이외 교내 활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담임선생님이나 동아리 선생님께 1학기 활동에 어떤 부분이 계획되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연간으로 계획된 행사나 프로그램에 자신이 참여할 때 앞으로는 참여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다이어리에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참여한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한 후속활동을 찾아서 실행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수업과 관련해서도 수업 중에 자신이 호기심을 느꼈던 부분이나 수행평가 중에서 궁금했던 사항, 발표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그것과 연계하여 후속활동을 찾아보고 그러한 후속활동 결과를 다이어리에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담임선생님이나 각 과목 교과목 선생님께 어필해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다면 풍성하고 더 매력적인 학생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더 좋은 것은, 과목별로 앞으로 자신이 지적호기심을 가지고 수행할 내용들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호기심을 느껴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B라는 책을 찾아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면, A라는 주제와 B라는 책을 연결해서 지적호기심을 확장한 과정을 C라는 소감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미리 작성해보고, 그러한 로드맵에 맞춰서 실제 실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정리만 한다면 약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쉬운데, 미리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에 실천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난이도 있는 세부능력특기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각 과목별 로드맵을 작성해 놓고 기말고사 끝

난 이후 실행에 옮긴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결과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연계, 후속활동으로서의 독서 활동

독서의 경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서활동 란에 저자와 제목만 기재하도록 바뀐 이후에는 단순한 질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독서, 후속 활동, 심화활동으로 연계된 독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학생부 독서활동 란에 제목, 저자, 주요 내용, 소감 등 1권당 2~4줄 정도 작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목과 저자 밖에 기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독서에 있어서도 내용적인 부분은 학생부 각 항목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 활동 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등 각 교과목 별로 기재할 수 있는 란과 각 교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의 진로나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기재할 수 있는 공통 란이 있는데, 각 개별 교과목 독서 담당자는 각 교과선생님, 공통 독서란 담당은 담임선생님입니다.

공통 독서의 경우 중간고사 끝난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시 생각해보고, 학생부 1학기 항목 란에 진로에 대한 책을 몇 권이라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개별 교과목 독서의 경우 각 교과목 선생님을 찾아뵙고 교과목 선생님께 책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해 교과선생님과 친해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쯤에는 각 교과목 선생님을 찾아뵙고 책을 추천받으면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선생님께서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추천된 책의 내용과 소감 등을 기재해 주시기도 하므로 어차피 과목별 독서를 해야 한다면 교과선생님께 추천 받기를 권장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각 선생님께 찾아가서 책을 추천 받으면 선생님께서도 바쁘시기 때문에 제대로 추천해줄 상황이 안될 수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이전에 미리 추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제 읽는 것은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나 여름방학 동안 책을 읽어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학년의 경우, 진로가 정해진 학생이라면 진로에 관한 책 2~3권을 1학기에 기재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은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까지는 고전 위주로, 융합 독서 위주로 독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학년의 경우 자기소개서 항목별 후속활동에 쓸 내용이 없는 학생은 독서를 통해 내용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2학년의 경우도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세부능력특기사항의 내용과 연계되는 후속활동으로 독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부능력특기사항의 후속, 연계활동의 한 과정으로 독서활동을 활용해서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 봉사활동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이번 1학기 봉사는 의미가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외부 봉사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양로원, 요양원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실제 방문 자체에 제한이 생기고, 다른 외부 봉사활동의 경우도 대면 봉사가 줄어들어서 외부 봉사는 힘들고 학교 내부에서 학교 청소나, 실내 미화 정도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각 대학에서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고3 재학생의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방안에서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봉사활동의 평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므로 현재 고3의 경우 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은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학년의 경우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지정해주시는 학교 청소나 실내 미화 등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 이외의 외부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1학기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2학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후속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기말고사 준비 및 계획표 작성

이번 중간고사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수업의 파행, 실제 수업 시간의 부족, 학생들의 집중도 저하 등으로 인해 시험 난이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시험 범위도 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범위도 넓어지고 난이도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들의 평가에는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 기말고사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표 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이어리를 작성하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이 했던 활동을 기록하는 의미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3의 경우, 누적된 학습으로 인해서 슬럼프도 오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친구들의 유혹도 있는 등 여기저기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게 됩니다. 또한 고3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해야 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공부,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4주 이상의 시간을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4주 전체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시간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학습만이 스트레스, 슬럼프, 친구들의 유혹, 학습의 편식을 예방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1,2학년의 경우 계획표에 따른 실천이라는 연습,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2,3학년 때 비로소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 없이 목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의 경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난이도가 높고 시험범위도 넓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1학기 결과는 물

론 앞으로의 입시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계획표는 4주 전체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시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디서 누구와 함께 계획표를 실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학교 교실, 학교 도서관, 학원 교실, 독서실, 카페, 집 등 다양한 장소가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부 장소에 제한이 생깁니다. 3학년의 경우, 정상적인 등교이기 때문에 수업 이외 시간에 있어서 위의 장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1,2학년의 경우 제한적인 등교로 인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원 교실, 독서실, 카페, 집 정도의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더운 여름에 자신을 통제하면서 계획에 맞춰 학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간의 통제가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3학년의 경우 계속 등교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관리해주는 학교 도서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학년의 경우 부모님이 없는 집, 카페는 자신을 통제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학교 도서관을 개방한다면 학교도서관, 개방되지 않는다면 아는 친구가 없는 독서실에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기말고사 계획표, 학습 장소는 반드시 부모님, 선생님과 공유하여 최소한의 체크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 - 3학년

“첫 줄부터 막막해요...”

“연필 들고 한 시간 켜 한 줄도 못 썼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한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보면 정말 어떤 아이템으로 써야 하는지,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필은 들지만, 노트북을 펼치지만 한 시간 동안 한 줄 쓰기도 어렵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쉽지 않습니다. 지문이 나와 있고, 나와 있는 지문을 분석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논술 같은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연습을 해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자신이 직접 지문을 만들고(아이템 선정 및 틀 만들기), 만든 지문을 바탕으로 매력 있게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작업을 단기간에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 일정, 대학 입시 일정이 미뤄져서 8월이 지나야 기말고사가 끝나기 때문에 예년처럼 기말고사 끝나고 써야지, 여름방학 때 써야지 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보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들이 수능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자기소개서를 쓰다보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1학기가 다 지난 시점에 작성할 때 만약 항목별로 쓸 소재가 부족하면 보완할 시간적 여유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해 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기말고사가 시작되

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반드시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깊게 준비해 놓는다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자기소개서 최종본 완성할 때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완성본을 위한 초안은 면접 준비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말고사 준비하기도 바쁜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여 자기소개서 초안도 한번 작성해보면 좋겠습니다.